

미국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0년과 ‘한 책’의 분석*

An Analysis of ‘One Book’s Selected in Twenty Year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윤 정 옥 (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한 책, 한 도시’ 선정 책 분석 |
| 1.1 연구의 배경 | 3.1 선정 책의 일반적 특성 |
|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2 한 개 프로그램 선정 책들의 특성 |
| 2. 선행연구 | 4.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의 선호도, 분류기호, 주제표목, 발행연도, 장르 등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LC(Library of Congress) 도서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주별 및 작가별 리스트를 기반으로 전체 선정 책 1,102권 및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812권의 LC OPAC 서지레코드 735건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To Kill a Mockingbird* 등 선호된 책들의 계속적 영향력과 ‘The Big Read’를 통한 ‘한 책’의 수명 연장, 발행 1-2년 된 신간에 대한 선호, LC 분류체계의 P(문학 및 어학) 주제 집중(530권, 72.1%)과 PS(미국문학)의 압도적 중요성(307권, 57.9%), 가정소설, 역사소설, 심리소설 장르의 높은 비중과 43개 장르의 분산, 고유한 주제표목 535개 중 “City and town life”와 “World War, 1939-1945”(8권) 표목의 중요성 및 개별 주제표목들의 다양성, 96개 주제표목 그룹에서 “African American...”(20권)과 “Woman...”(16권)으로 시작하는 그룹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선정 책들의 주제가 통합, 이해, 관용 등에서 인권, 환경, 평화 등으로 변화하고 다양화하는 현황과 추이를 기술하였으나, 책 선정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및 독서운동이 가져온 실제적 변화 등은 다루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commun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known as ‘One Book, One City’ reflected in the books selected for this campaign for the past 20 years in terms of their classification numbers, subject headings, publication dates, and genres. Analyzed are the author and state list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Promotions Projects available from the website of the LC (Library of Congress) Center for the Books, and bibliographic records of 735 books selected in only one ‘One Book’ program, accessed from LC OPAC. Major findings include continuing influences of the all-time favorite ‘One Book’ selections, including *To Kill a Mockingbird* and the extension of their span of life through The Big Read, preference for the recent publications, importance of P (Literatures and Languages) Class (530 titles, 72.1%) and PS(American Literatures) subclass (307 titles, 57.9%) in the LC Classification Scheme, distribution of books in 43 genres, including domestic fiction, historical fiction, and psychological fiction, etc., the use of 535 unique LC subject headings and much interests in “City and town life” (10 titles) and “World War, 1939-1945” (8 titles), and prominence of subject groups which begin with “African American...” and “Woman...” out of 96 groups of subject headings. It is found that the subjects and focus of the selected books expand from integration, understanding, integrity to human rights, environment, peace, etc.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influence of the selected books and the changes in communities are not properly analyzed.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미국공공도서관, 지역사회 운동, ‘한 책’, 주제 다양성, 미국문학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Public Libraries in the U.S.A, Community Movement,
Subject Diversity, American Literature

* 이 논문은 2016-2017 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7년 7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7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45-64, 2017.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045]

1.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이하 “한 책 독서운동”이라고 부름)이라고 알려진 ‘One Book, One City’ 대중독서운동의 모형은 지난 1998년 미국 Washington 주 Seattle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지난 20년 간 미국 전역의 여러 지역사회들에서 진행되었다. 2002년 시작된 New York City의 ‘One Book, One New York’가 2017년 2월 1일부터 6월까지 Chimamanda Ngozi Adichie의 소설을 선정하여 읽었던 것처럼(New York City 2017), 한 지역사회가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이야기하자는 목표를 가진 이 혁신적 형태의 대중독서운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한 책’ 독서운동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도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청주의 ‘책 읽는 청주’, 부산의 ‘원 북, 원 부산’ 등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이용재 2009).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은 미국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하 NEA)가 문학 읽기문화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The Big Read 독서 이니셔티브’(이하 TBR이라 부름)에서도 채택되어, 2006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2017년 현재까지 1,200여 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었다(NEA 2017).

미국의회도서관 도서센터(Library of Congress, The Center for the Books, 이하 LC라고 부름) 웹사이트의 ‘Local/Community Resources’에는 그동안 진행된 ‘한 책’ 프로그램의 미국 내 ‘주별(州別) 리스트’(Library of Congress 2017a)

와 선정된 책의 ‘작가별 리스트’(Library of Congress 2017b)가 공개되고 있어, 지금까지 진행되는 ‘한 책’ 프로그램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2002년 이래 매년 두 차례 ‘One Book, One Chicago’를 진행하지만, 2008년까지만 등록하고 있는 Chicago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을 즉각 등록하지 않는 지역사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들이 완전한 현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2017년 4월 현재 ‘작가별 리스트’에는 모두 678명의 작가와 ‘One Book’(이하 ‘한 책’이라고 부름)으로 선정된 책 842권이 등록되어 있다. 이 책들은 모두 2,019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이들 중 588권의 책은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별 리스트’에는 모두 2,331개 프로그램과 선정된 책 1,102권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중 812권은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리스트들의 불완전성 및 리스트들 간 불일치라는 제한점 때문에 ‘한 책’ 독서운동의 정확한 통계적 분석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책을 읽는가? 이 질문은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가와 연관되어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의 첫 십 년 동안 2개 이상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의 연구(윤정옥 2012)에 따르면, “미국이라는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삶을 그린 전기적 성격의 교양소설이나 가정소설 형식의 비교적 최근 간행된 미국문학작품”이 많이 선정되었다. 이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달성하는 생각이 ‘한 책’ 독서운동의 일관적인 지향

점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책' 독서운동의 역사가 이십년에 이르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단 한 개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을 분석하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선정되는 책들과 구별될 수도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별 지역사회가 특정한 책을 선정함으로써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선정된 책들의 개별적 특성이 누적됨으로써 드러나는 집합적 특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진행된 '한 책' 독서운동에서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만 선정된 책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 책' 독서운동 자체가 지향하는 집합적 목표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전 연구들에 살펴보았던 여러 지역사회에서 함께 선정된 책들의 특성과 더불어, 개별 지역사회에서 각각 선정된 책들의 발행연도, 주제와 장르 등 특성을 통해 개별 책들이 누적되고 수렴되면서 드러날 수도 있는 '한 책' 독서운동의 공통적 지향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4월 2일 현재 LC의 Center for the Books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독서운동 프로그램들의 '주별 리스트' 및 선정 책들의 '작가별 리스트'에 수록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주별 리스트'에는 "One Book, One Bakersfield", "Orange County Reads One Book" 등 모두 604개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고, 2,33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1,102권의 책

이 등록되어 있다. '작가별 리스트'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은 없이, 작가 이름, 책 제목 및 지역명만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Shirley Abbott의 *Bookmaker's Daughter* 항목에는 "*State-wide program(Arkansas) 2006", Peter Abrahams의 *Dog On It* 항목에는 "Norwell(Massachusetts) 2010"과 같이 등록되어 있다. 이 리스트에 등록된 작가 678명의 책 842권은 2,019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작가별 리스트'와 '주별 리스트'에 등록된 책과 프로그램 수에 차이가 있지만, '주별 리스트'를 중심으로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812권을 분석하고, 책에 관한 내용은 '작가별 리스트'로 확인하였다.

각 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C OPAC에서 서지레코드를 확인하여, 발행사항, 분류기호(LC 분류체계 기반), LC 주제표목(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MARC 서지포맷 650 필드: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및 장르 표목(MARC 서지포맷 655 필드: Index Term-Genre/Form)을 검토하고, MS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812권 중 책이 아니라, 한 작가의 작품 그룹 혹은 주제를 의미한 30개 프로그램의 것은 제외했다. 예를 들어 2010년 Illinois 주 Naperville에서 "[The Works of] Neil Gaiman"이라는 제목으로 Neil Gaiman의 여러 작품들을 읽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제외했다.

또한 2009년 New York 주 Brooklin에서 진행된 "Mysteries set in Boston", 2005년 Texas 주 Austin에서 진행된 "Writing Austin's Lives: A Community Portrait"처럼 주제로 진행된 6개

프로그램도 제외했다. LC OPAC에서 서지레코드를 찾을 수 없는 책 16권도 제외함으로써, 실제 서지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책 735권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한 책’ 독서운동이 이십 년 가까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다룬 몇몇 연구가 등장했지만, 대개 학술연구보다는 개별 지역사회의 사례연구나 리뷰들이다. 그 중 주목할 만한 Griswold & Wohl의 연구(2015)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간 LC 리스트에 등록된 567개 ‘One Book’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작가 1,193명의 책 1,506권, 3,110개 선정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은 50개 주에서 ‘One Book’ 프로그램 리더들과 인터뷰를 통해, 문화의 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권위로서 문학적 취향을 공유하고, 최신 독자들의 선호도를 인지하지만, ‘One Book’의 선택은 그것들을 반영하지는 않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One Book’ 프로그램은 엘리트 취향과 시장 세력에 저항하는 지역문화를 영속화한다고 주장하며, 저자의 출생연도, 성별, 인종, 출생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책들 자체는 상세히 분석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다양한 삶(diverse lives)”에 관한 책들이 선정되며, “독자의 시야를 확대하고, 인간적 공감의 범위를 확장할 목적을 가짐”을 확인했다(Griswold and Wohl 2015, 102). 이 연구는 ‘One Book’ 독서운동 자체보다는 “문화 전도사(Evangelists of culture)”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의 지적 오피니언 리더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Dempsey(2009)는 *Library Journal*의 리뷰에서 Seattle Public Library에서 ‘One Book’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Nancy Pearl이 강조한 것처럼, ‘One Book’은 어떤 지역사회의 요구나 자원에도 맞추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One Book, One Jewish Community’는 Philadelphia의 유대인 주민들이 모여 유대인 작가의 책을 읽고 했으며, ‘One Book, One Zip Code’는 주소의 5자리 우편번호(zip codes)를 공유하는 3개 타운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것처럼, ‘One Book’ 프로그램의 인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력 및 지역사회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서의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학술연구는 아니지만, 당시까지 ‘One Book’ 프로그램의 일반적 현황과 특성을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한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he Big Read를 다룬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이들은 ‘한 책’ 독서운동을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2006년 시범사업 이래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국가적 지역사회 독서이니셔티브의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Sloan, Honeyford and Bass(2008)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6개월 단위의 The Big Read 프로그램 2단계 3개 주기(Phase 1, Cycle 1 & 2; Phase 2, Cycle 1)에 참여한 지역사회들을 심층 조사하여, 참여자들은 전체적으로 선정된 책 및 The Big Read의 아이디어 자체에 매우 긍정적이며, 원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이후 독서 혹은 문학 활동이 더 증가했지만, 학교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이 더 많이 필요함을 발견했다.

Rockman et al.(2009)은 앞서 언급한 Sloan, Honeyford and Bass(2008) 연구의 일환으로 Texas 주 Houston의 Harris County Libraries, Connecticut 주 Bridgeport의 City of Bridgeport 등 35개 The Big Read 참여 지역사회의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전화와 면-대-면 공식 및 비공식 인터뷰와 프로그램 행사의 직접 참여 및 관찰을 통해 지역사회와 파트너 참여기관들 및 독서습관에 미치는 영향의 심층적 평가를 시도했다. 참여 지역사회들을 2 단계 3주기에 걸쳐 조사하고, 18개 항목으로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사회들은 책 주제가 지역사회에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정하며, 이 주제들을 탐구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다양함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역사회들에서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를 읽으면서도, 어느 한 곳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 연구는 선정된 책은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행되고,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고, The Big Read를 기존의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윤정옥은 일련의 연구(2005; 2009; 2012; 2014a; 2014b; 2015)에서 미국 '한 책' 독서운동의 성장과 확산추이를 분석하여 "개혁적, 지속적 및 집합적 독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하고, '한 책' 선정 작가와 책의 선호도, 주제, 장르, 발행연도 등 제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들이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적 목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책 선정에서 "1990년대 이후 간행도

서에 대한 선호, 전기 및 전기적 소설의 중요성,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이해라는 주제의 집중성"이 드러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가장 많은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와 『화씨 451』 사례를 분석하며,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용재(2008; 2009)는 '한 책' 독서운동에 반영되는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의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주도한 '원 북, 원 부산' 사례를 통해 국내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긍정적 효과와 현실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우윤희와 김종성(2014)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31개 지역 시·구의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473권 357종의 책들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조찬식(2013)은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윤정옥(2013)은 국내 연구들을 리뷰하며 주로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들은 부차적 혹은 평행적 행사로 참여하게 하는 미국과 달리 어린이 중심 책 읽기 행사와 체험 중심의 국내 '한 책' 독서운동의 특성을 지적한 바 있다.

3. '한 책, 한 도시' 선정 책 분석

3.1 선정 책의 일반적 특성

3.1.1 '한 책'의 선호도

이 연구에서 '한 책' 프로그램의 '주별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2017년 4월 현재까지 2,33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고유한 책들은 1,102권으로 나타났다. <표 1>은 '한 책' 독서운동에

〈표 1〉 선정된 ‘한 책’과 프로그램의 분포 (2017년 4월 현재)

저자명	서명	지역	선정 프로그램	권수
Harper Lee	<i>To Kill a Mockingbird</i>	Bay Minette (Alabama) 2003 등	87	1
Ray Bradbury	<i>Fahrenheit 451</i>	Anchorage (Alaska) 2007 등	53	1
Khaled Hosseini	<i>The Kite Runner</i>	Zionsville (Indiana) 2005 등	49	1
Homer Hickam	<i>Rocket Boys</i>	Grove Hill (Alabama) 2006 등	39	1
Greg Mortensen	<i>Three Cups of Tea</i>	Richardson (Texas) 2009 등	30	1
Ernest J. Gaines	<i>A Lesson Before Dying</i>	Miami (Florida) 2003 등	25	1
Mitch Albom	<i>Tuesdays with Morrie</i>	Long Beach (California) 2002 등	21	1
Mark Haddon	<i>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i>	Santa Barbara (California) 2004 등	20	2
Bill Bryson	<i>A Walk in the Woods</i>	Augusta (Maine) 2004 등	19	6
James McBride	<i>The Color of Water</i>	Fort Collins (Colorado) 2006	18	1
Tim O'Brien	<i>The Things They Carried</i>	Sharon (Massachusetts) 2010	17	1
Leif Enger	<i>Peace Like a River</i>	Pasadena (California) 2003 등	15	2
John Grogan	<i>Marley and Me</i>	Burbank (California) 2007 등	14	3
Barbara Kingsolver	<i>Animal, Vegetable, Miracle</i>	Belmont (Massachusetts) 2009 등	13	2
Jhumpa Lahiri	<i>The Namesake</i>	Stoughton (Massachusetts) 2010	12	1
Sara Gruen	<i>Water for Elephants</i>	Winnetka-Northfield (Illinois) 2007 (성인) 등	11	6
Sandra Cisneros	<i>The House on Mango Street</i>	Jacksonville (Florida) 2004 등	10	4
Laura Hillenbrand	<i>Seabiscuit: An American Legend</i>	Waco (Texas) 2003	9	3
Rick Bragg	<i>All Over But the Shoutin'</i>	주 전역 (Arkansas) 2003 #1 -	8	6
Kate DiCamillo	<i>Because of Winn-Dixie</i>	Orlando (Florida) 2003 등	7	7
Tom Brokaw	<i>The Greatest Generation</i>	Long Beach (California) 2007 등	6	15
Julia Alvarez	<i>How the Garcia Girls Lost Their Accents</i>	San Bernardino (California) 2007 등	5	20
Russell Banks	<i>The Sweet Hereafter</i>	Vigo County (Indiana) 2005 등	4	28
Rachel Carson	<i>Silent Spring</i>	Bridgewater (Massachusetts) 2008-09 #2 등	3	32
Jhumpa Lahiri	<i>Interpreter of the Maladies</i>	주 전역 (District of Columbia) 2004 등	2	144
Paul Auster	<i>The Invention of Solitude</i>	Buffalo (New York) 2005	1	812

서 어떤 책들이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는지 순위를 보여준다. 선정된 ‘한 책’의 선호도를 다룬 이전 연구들(2012; 2014)과 비교할 때, 2017년 현재 선호된 책들의 순위는 거의 변함이 없다.

가장 선호된 책은 여전히 모두 8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Harper Lee의 *To Kill a Mockingbird*이며, 많이 선정된 Ray Bradbury의 *Fahrenheit 451*(53개 프로그램), Khalid Hosseini의 *The Kite Runner*(49개 프로그램)의 순위도 그대로

이다. 그 다음으로 Homer Hickam의 *Rocket Boys*(*October Sky*) (39개), Greg Mortensen의 *Three Cups of Tea* (30개), Ernest J. Gaines의 *A Lesson Before Dying* (25개), Mitch Albom의 *Tuesdays with Morrie* (21개) 등 선호된 책들의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체 1,102권 중 2개 이상 프로그램 선정 책은 290권(26.3%)이고,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은 812권(73.7%)이다. 2013년 당시 전체 책 1,037권 가운데 단 한 개 프로그램

에서 선정된 책 759권(73.2%)보다 52권 증가했다.

3.1.2 '한 책'의 수명

여기에서는 '한 책'의 수명, 즉 특정한 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된 책들 중 일부는 아직도 간간히 선정되고 있지만, 어떤 책들은 일정 시점 이후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To Kill a Mockingbird*는 2002년 'One Book, One Chicago'에서 처음 선정된 이래 아직도 매년 몇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고 있다. 2010년 이후만 보아도,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개 프로그램에서, 2012년,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Fahrenheit 451*도 2002년 처음 선정된 이래 매년 꾸준히 선정되었고, 2011년에 Massachusetts 주 Pittsfield에서 선정된 것이 등록되어 있다. *Rocket Boys(October Sky)*는 2002년 처음 선정된 이래 계속 선정되었고, 2010년 2개 및 2011년 3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Three Cups of Tea*는 2007년 처음 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이래 매년 선정되었고, 2010년 3개 프로그램, 2011년 1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하지만 *The Kite Runner*는 2004년 5개 프로그램에서 처음 선정된 이래 이삼년 간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되어, 전체 선호도 순위는 높지만, 2008년 2개 프로그램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선정되지 않았다. *A Lesson Before Dying*은 1999년 'If All Seattle Reads the Same Book'에서 처음 선정된 이래 모두 25개 프로그

램에서 선정되었지만, 2009년 Massachusetts 주 Holyoke, Georgia 주 Fayette County에서 선정된 이후 어디에서도 선정되지 않았다. 2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Tuesdays with Morrie*도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만 선정되었고, 20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 Time*도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만 선정되었다.

*The Color of Water*는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만 18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The Things They Carried*는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17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다음 절에서 볼 것처럼,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많은 '한 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그런 만큼 다양한 책들이 선정되었으며, 같은 책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진행되는 '한 책' 프로그램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아울러 선정 책의 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이전에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되었던 책들이 더 이상 선정되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된 책들 중 몇 권은 그 자체가 '한 책'으로서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The Big Read의 선정도서에도 포함되면서 가시성과 영향력이 연장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To Kill a Mockingbird*, *Fahrenheit 451* 및 *The Things They Carried* 등 책은 The Big Read의 권장도서로 선정되었고,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고 있다.

3.1.3 '한 책'의 연도별 선정 추이

〈표 2〉는 2017년 4월 현재 확인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시행된 프로그램과 선정된

〈표 2〉 시행연도별 프로그램 및 선정 책 (2017년 4월)

시행연도	프로그램(개)	선정 책(권)	책 선정 비율(%)	시행연도	프로그램(개)	선정 책(권)	책 선정 비율(%)
1998년	1	1	100%	2008년	217	160	74%
1999년	2	2	100%	2009년	139	111	80%
2000년	3	2	67%	2010년	81	69	85%
2001년	15	14	93%	2011년	68	59	87%
2002년	149	95	64%	2012년	40	38	95%
2003년	196	118	60%	2013년	34	33	97%
2004년	279	210	75%	2014년	26	25	96%
2005년	316	202	64%	2015년	15	14	93%
2006년	352	242	69%	2016년	5	5	100%
2007년	393	269	68%	합계	2,331개	1,669권	

책들의 총수를 보여준다. 1998년 Washington 주 Seattle에서 ‘한 책’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고, Russell Banks의 *The Sweet Hereafter*를 선정한 이래 2016년까지 모두 2,331개 프로그램에서 1,669권의 책이 선정되었다. 여기서 1,669권은 중복된 책들의 누계이며, 고유한 책들의 수는 1,102권이다.

한편 연도별 진행된 ‘한 책’ 프로그램 수의 증감 추이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이는 이전 연구(윤정옥 2013)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맨 처음 1998년 Seattle에서 ‘한 책’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관심을 끌었으나, 2001년 Chicago의 ‘One Book, One Chicago’가 미국 전역 및 국제적 주목을 받아, 2002년부터 많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고, 2007년 정점에 이르기까지 증가세는 지속되었다. 그 사이 2006년 ‘한 책’ 독서운동의 모형을 채택하고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가 재정을 지원하는 ‘The Big Read’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0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일부 지역사회는 흥미 감소, 재정, 지속 곤란 등 다양한 이유로 ‘한 책’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도 하였고, 개별적으로 ‘한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 ‘The Big Read’에 참여하여 책을 읽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한 책’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은 2007년이었고, 모두 393개 프로그램에서 269권의 책이 선정되었다. 〈표 2〉에 보는 것처럼 2007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08년 217개, 2009년 139개에 이어, 2010년에는 81개 프로그램만 진행되며 두 자릿수 아래로 줄어든 것과 더불어 선정 책 수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과 선정된 책들을 보면, 점점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중복 선정되는 책들의 수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2016년에는 California 주 Santa Monica에서 선정된 St. John Mandel의 *Station Eleven*을 포함하여 모두 5개 프로그램에서 5권의 책이 각각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15개 프로그램에서 14권의 책이 선정되었다. Laura McBride의 *We Are Called to Rise*만이 New York 주 Western New York과 Texas 주 Richardson에서 선정되었고, Massachusetts

주 Sharon에서 선정된 Geraldine Brooks의 *Caleb's Crossing* 등 나머지 13권의 책은 각각 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26개 프로그램에서 25권의 책이 선정되었는데, Mary Shelley의 *Frankenstein*이 Massachusetts 주 Falmouth와 Indiana 주 South Bend, 두 곳에서 선정되었을 뿐, Kansas 주 Louisburg에서 선정된 Lois Lowry의 *The Giver* 등 24권의 책은 24개 프로그램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2013년에는 34개 프로그램에서 33권의 책이 선정되었다. Michael Shaara의 *Killer Angels*만이 Massachusetts 주 Ipswich와 Indiana 주 South Bend, 2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됐고, Massachusetts 주 Abington에서 선정된 Stephen Puleo의 *Dark Tide* 등 32권의 책은 각각 1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개별 '한 책' 프로그램에서 각각 고유한 책을 선정하는 비율은 2003년 60%로 가장 낮았고,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60-70% 안팎의 비율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 많은 '한 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지만 같은 책을 여러 프로그램에서 함께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책들의 다양성이 적었다. 이 고유한 책의 선정 비율은 2008년부터 70%대, 80%대, 90%대로 점점 증가하였다. 점점 '한 책' 프로그램들의 수도 줄고, 같은 책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선정되는 비율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선정 책들의 다양성은 커졌음을 의미한다.

3.2 한 개 프로그램 선정 책들의 특성

여기에서는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1,102권의 책들 가운데,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812권의 책들을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2개 이상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의 특성을 이미 기술한 바 있는데, 현재 몇 권의 책들이 더 추가되었을 뿐, 전체적인 특성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별 지역사회의 개성이나 취향을 더욱 드러낼 수도 있는,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책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LC OPAC에서 서지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735권을 중심으로 책들의 발행연도 분포, 주제 및 장르 등 특성을 살펴보았다.

3.2.1 선정 책들의 발행연도

이 절에서는 LC OPAC의 서지레코드에서 발행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책 726권을 살펴보았다. <표 3>은 1920년대 이전,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10년 단위로, 2000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행연도 분포를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최근 십여 년 사이 발행된 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 책들을 묶어보면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발행된 책이 412권(56.7%)으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에 발행된 책이 133권(18.3%), 2010년 이후 발행 책이 54권(7.4%)이다.

1990년대 이후 발행된 책들이 599권(82.5%)에 이르고, 1990년대 이전 책들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앞의 <표 1>에서 본 것처럼,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호된 책들 중 1960년 발행된 *To Kill a Mockingbird*, 1953년 발행된 *Fahrenheit 451*, 1925년 발행된 *The Great Gatsby* 등 미국문학 고전으로 평가되는 책들이 여럿 들어있는 것에 비해,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은 대부분 비교적 신간이다.

〈표 3〉 선정 책들의 발행연도 분포 (N = 726)

발행연도	권수	발행연도	권수	발행연도	권수
1920년대 이전	17	2000년	34	2008년	28
1930년대	9	2001년	45	2009년	29
1940년대	14	2002년	40	2010년	14
1950년대	21	2003년	46	2011년	14
1960년대	20	2004년	55	2012년	14
1970년대	21	2005년	43	2013년	7
1980년대	25	2006년	48	2014년	3
1990년대	133	2007년	44	2015년	2

그렇다고 해도 오래전에 발행된 책들에도 관심은 있었다. 예를 들어 1922년 처음 발행된 H.G. Wells의 *The War of the Worlds*는 2004년 Florida 주 Gainesville에서 선정되었고, 1938년 발행된 Richard Wright의 *Uncle Tom's Children*은 2008년 Mississippi 주 전역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다. 선정 책들에는 1800년대에 발행된 9권도 포함되어 있다. 1894년 발행된 Mark Twain의 *Puddn'head Wilson*은 2002년 New York 주 Jamestown에서 선정되었고, Herman Melville의 *Moby Dick*은 2010년 Massachusetts 주 Falmouth에서 선정되었으며, 1859년 발행된 Charles Darwin의 *On the Origin of the Species*는 2008년 Indiana 주 South Bend에서 선정된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별도의 표로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개별 책들이 발행된 이후 얼마나 빠르게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발행 후 일이 년 이내 선정된 책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2012년 발행되었고 2013년 Massachusetts 주 Winchester에서 선정된 Chris Bohjalian의 *The Sandcastle Girls*, 2015년 발행되었고 2016년 New York 주 Western New York에서 선정된 S.M. Hulse의 *Black River*와 같이 발행 다

음해 선정된 책들이 모두 122권(1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발행 2년차에 선정된 책들이 111권(15.2%)으로 많았다. 그 밖에 발행 3년차에 선정된 책들은 74권(10.1%), 4년차에 선정된 책들은 48권(6.6%), 5년차에 선정된 책들은 39권(5.3%)이었다.

발행된 그 해 바로 선정된 책들의 수는 그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2014년 발행되어 같은 해 Ohio 주 Cincinnati에서 선정된 April Smith의 *A Star for Mrs. Blake*, 2012년에 발행되어 같은 해 Massachusetts 주 Arlington에서 선정된 John Green의 *The Fault in Our Stars*와 같이 발행된 그 해 바로 '한 책'으로 선정된 책들은 37권(5.1%)이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최근 발행된 책들이 많이 선정되긴 하지만, 적어도 발행 후 일이년 정도는 책들의 평판이나 인지도가 자리 잡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선정 책들의 주제

이 절에서는 LC OPAC에서 서지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735권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서지레코드에 LC 청구기호(MARC21 서지 포맷의 050 필드: Library of Congress Call Number)를 포함하고 있는 735권의 책들은 〈표 4〉에 보는

〈표 4〉 선정 책들의 주제 분포 (N=735)

LCCN Class		책수	비율	LCCN Class		책수	비율
B	철학, 심리학, 종교	7	1.0%	M	음악	3	0.4%
C	역사 보조과학	7	1.0%	N	순수예술	3	0.4%
D	세계사 및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6	2.2%	P	언어 및 문학	530	72.1%
E	미국역사	29	4.0%	Q	과학	19	2.6%
F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및 라틴아메리카 역사	35	4.8%	R	의학	12	1.6%
G	지리, 인류학 및 오락	27	3.7%	S	농업	8	1.1%
H	사회과학	21	2.9%	T	기술	8	1.1%
J	정치학	1	0.1%	U	군사학	2	0.3%
K	법률	1	0.1%	V	해양학	1	0.1%
L	교육	3	0.4%	Z	서지, 도서관학, 정보자원 (일반)	2	0.3%
				총수		735	100%

바와 같이 LC 분류체계의 20개 주제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

전체에서 P(언어 및 문학) 주제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비문학 주제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절대다수인 530권(72.1%)이 P(언어 및 문학) 주제에 속하며, 그 다음으로 35권(4.8%)이 F(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및 라틴아메리카 역사), 29권(4.0%)이 E(미국역사), 27권(3.7%)이 G(지리, 인류학 및 레크리에이션) 주제에 속해 있다. 그밖에 H(사회과학)에 21권(2.9%), Q(과학)에 19권(2.6%), D(세계사 및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에 16권(2.2%)이 속해 있고, 나머지 13개 주제에도 몇 권씩 책들이 분산되어 있다.

R(의학)에는 12권(1.6%), S(농업)와 T(기술)에는 각각 8권(1.1%), B(철학, 심리학, 종교)와 C(역사 보조 과학)에는 각각 7권(1.0%), L(교육), M(음악), N(순수예술)에는 각각 3권(0.4%)이 속해있다. U(군사학)와 Z(서지, 도서

관학, 정보자원(일반)) 주제에 각각 2권(0.3%), J(정치학), K(법률), V(해양학)에는 각각 1권(0.1%)이 속해있다.

3.2.3 언어 및 문학 책들의 분포

LC 청구기호를 가진 책들 중 가장 비중이 큰 P(언어 및 문학) 주제 530권의 하부주제 분포는 〈표 5〉에 보는 바와 같다. PS(미국문학)에 해당하는 책들이 가장 많았고(307권, 57.9%), 그 다음은 PZ(소설 및 청소년 순수문학)에 해당하는 책들이었다(178권, 32.6%).

PR(영국문학)과 PN(문학(일반))으로 분류된 책이 각각 26권(4.9%)과 13권(1.4%)이 있었고, PQ(프랑스 문학-이탈리아 문학-스페인 문학-포르투갈 문학)이 5권(0.9%), PT(독일문학-네덜란드문학 등)로 분류된 책이 3권(0.6%) 있었다. 그밖에 PA(그리스 어문학), PG(슬라브어, 발트어, 알바니아어), PL(동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어문학)에 해당하는 책이 각각 1권씩 있었다. 2003년 New York 주

〈표 5〉 P(언어 및 문학) 책들의 분포 (N = 530)

P: Subclass		책	비율	P: Subclass		책	비율
PA	그리스 어문학	1	0.19%	PR	영국문학	26	4.9%
PG	슬라브어, 발트어, 알바니아어	1	0.19%	PS	미국문학	307	57.9%
PL	동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어문학	1	0.19%	PT	독일문학-네덜란드문학 등	3	0.57%
PN	문학(일반)	13	2.4%	PZ	소설 및 청소년 순수문학	173	32.6%
PQ	프랑스문학-이탈리아 문학-스페인 문학-포르투갈 문학	5	0.9%		총수	530	100%

Ithaca/Tompkins County에서 선정된 Sophocles의 *Antigone*, 2006년 'One Book, One Chicago'에서 선정된 Aleksandr Solzhenitsyn의 *One Day in the Life of Ivan Denisovich*, 2004년 Wisconsin 주 LaPorte County에서 선정된 Witi Tame Ihimaera의 *Whale Rider*가 순서대로 이 주제들에 해당하는 책들이다.

영어 외 다른 언어의 문학 책이 11권(2.08%)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문학 혹은 영어권 문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책' 독서운동을 통해 들여다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삶"이 미국문학의 경계 밖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4 장르 분포

LC OPAC의 서지레코드에서 장르 표목(MARC21 서지 포맷의 655 필드)을 가지고 있는 책은 모두 277권이였다. 이 장르 표목 필드는 "기술대상인 자료들의 장르, 형태 및/혹은 물리적 특성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2007). 이 책들 중 일부는 두 개 이상의 장르 표목을 가졌으나, 거의 대부분 한 개만을 가지므로, 여기에서는 각 책의 첫 번째 장르 표목만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모두 43개 장르로

분산되어 매우 다양한 장르를 반영하였다.

이 책들의 장르들 중 2007년 Oregon 주 Portland/Multnomah County의 "Everybody Reads"에서 선정된 Judy Fong Bates의 *Midnight at the Dragon Cafe* 같은 가정소설이 54권(19.5%)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역사소설(36권, 13.0%)과 심리소설(30권, 10.8%)이 많이 선정되었다. 미스터리 소설(19권, 6.9%), 탐정 및 추리소설(18권, 6.5%), 교양소설(15권, 5.4%)이 그 뒤를 이었고, 차레로 전기소설(11권, 4.0%), 연애스토리(10권, 3.6%), 공상과학소설(9권, 3.3%), 환상소설(8권, 2.9%), 모험소설/스토리(7권, 2.5%), 서스펜스 소설(6권, 2.27%) 등이 선정되었다.

앞서 이전 연구들에서는 2005년 분석대상 90권의 책들 중 52권만이 장르 표목을 가졌고 이들은 6개 장르에 속했던 한편, 2010년에는 89권의 책들이 25개 장르에 분산되어 있었다. 두 연구 다 전체적으로 가정소설, 역사소설, 전기소설, 교양소설 등 장르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분석에서는 가정소설, 심리소설, 역사소설 등의 중요성이 컸다.

한편 자전소설, 교훈소설, 유머 스토리, 어린이 그림책, 정치소설의 5개 장르에는 2권씩의 책들이 속했고, 아프리카 소설, 우화, 에세이,

〈표 6〉 선정 책의 장르별 분포 (N=277)

장르 (2회 이상 나온 장르)		책	비율	장르 (1회 나온 장르): 21개	
Domestic fiction	가정소설	54	19.5%	African fiction	아프리카 소설
Historical fiction	역사소설	36	13.0%	Allegories	우화
Psychological fiction	심리소설	30	10.8%	Anecdotes	일화
Mystery fiction.	미스터리 소설	19	6.9%	Diary fiction	일기소설
Detective and mystery stories	탐정/추리소설	18	6.5%	Essays	에세이
Bildungsromane	교양소설	15	5.4%	Experimental fiction	실험소설
Biographical fiction	전기소설	11	4.0%	Feminist fiction	페미니스트 소설
Love stories	연애스토리	10	3.6%	Fishing stories	낚시스토리
Western stories	서부스토리	10	3.6%	Ghost stories	유령소설
Science fiction	공상과학소설	9	3.3%	Jewish fiction	유대소설
Fantasy fiction	환상소설	8	2.9%	Medical novels.	의학소설
Adventure fiction/stories	모험소설/스토리	7	2.5%	Motion picture plays.	영화희곡
Suspense fiction	서스펜스 소설	6	2.2%	Occult fiction.	신비소설
War stories	전쟁 스토리	4	1.4%	Pastoral fiction.	전원소설
Christian fiction	기독교소설	3	1.1%	Picaresque literature	악한소설
Historical drama	역사드라마	3	1.1%	Reality memoirs	회고록
Legal stories	법정스토리	3	1.1%	Sea stories	해양소설
Autobiographical fiction	자전소설	2	0.7%	Short stories	단편소설
Didactic fiction	교훈소설	2	0.7%	Spy stories	스파이 소설
Humorous stories	유머 스토리	2	0.7%	Stories in rhyme	압운스토리
Picture books for children	어린이 그림책	2	0.7%	Tragedies	비극
Political fiction	정치소설	2	0.7%		

실험소설, 페미니스트 소설 등 21개 장르에는 각각 단 한 권씩의 책이 속하였다. 전체적으로 비중은 크지 않았어도, 매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5 주제표목의 분포

서지레코드에 주제표목(MARC21 서지 포맷의 650 필드)을 포함하고 있는 책은 모두 703권이었다. 대부분 여러 개의 주제표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첫 번째 표목만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고유한 주제표목은 535개이다. 〈표 7〉에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중 440개의 주제표목

(62.6%)은 단 한 권의 책에만 나타났다. 개별 주제표목으로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City and town life--Fiction”으로서 모두 10권의 책에 나타났다. 2009년 Colorado 주 Broomfield에서 선정된 Kent Haruf의 *Eventide*, 2004년 Pennsylvania 주 Adams County에서 선정된 Ursula Hegi의 *Stones from the River* 같은 책들이 이 주제표목을 가졌다.

그 다음으로 많은 책에 나타난 주제표목은 “World War, 1939-1945”(8권)이다. 2009년 New Hampshire 주 Nashua에서 선정된 Chris Bohjalian의 *Skeletons at the Feast*, 2007년 Massachusetts 주 Holden에서 선정된 Michelle

〈표 7〉 주제표목의 분포 (N = 703)

주제표목	표목(개)	책(권)	책 소계(권)
City and town life--Fiction	1	10	10
World War, 1939-1945--England--Fiction	1	8	8
Families	1	7	7
Vietnam War, 1961-1975--Fiction	1	6	6
African American families 등	7	5	35
Mexican American families 등	3	4	12
Authors, American--20th century--Biography 등	23	3	69
African American boys--Fiction 등	58	2	116
Abagnale, Frank W., 1948- 등	440	1	440

Magorian의 *Good night, Mr. Tom* 같은 책들이 이 주제표목을 갖고 있다. 주제표목 “Families”는 7권의 책, “Vietnam War, 1961-1975--Fiction”은 6권의 책에 각각 나타났으며, “Dogs-Fiction”, “Fantasy” 등 7개 주제표목이 각각 5권의 책에 나타났다. “Japanese American families--Fiction”, “Jewish families -Fiction” 등 3개의 주제표목은 각각 4권의 책에 나타났다.

“Authors, American--20th century --Biography” 등 23개 주제표목은 3권의 책에, “African American boys --Fiction” 등 58개 주제표목은 2권의 책에 각각 나타났다.

둘째, 703개의 주제표목들 중 유사한 성격의 주제표목들을 96개 그룹으로 모을 수 있었다. 이 주제표목 그룹들 중 가장 큰 그룹은 “African American...”으로 시작되는 10개의 주제표목들로 구성되며, 그 안에 20권의 책들이 포함되었다. “African American boys”(2권), “African American families”(6권) 등 4개 주제표목은 여러 권의 책들에 나타났고, “African American farmers”, “African American journalists” 등 6개 주제표목은 각각 1권의 책에 나타났다.

두 번째로 큰 그룹은 ‘Women..’으로 시작되

는 13개의 주제표목들로 구성되며, 모두 16권의 책들이 포함되었다. “Women”(3권), “Women college students”(2권)를 제외한 “Women biologists”, “Women caregivers”, “Women librarians” 등 11개 주제표목은 각각 1권의 책에 나타났다. 주제표목 수는 이 그룹이 더 많지만, 포괄하는 책 수는 “African American...” 그룹이 더 많다.

703개 주제표목들 중 절반을 조금 넘는 381개(54.2%)는 다른 주제표목과 그룹화하기 어려운 고유한 표목이었다. 예를 들어, 2004년 Illinois 주 Winnetka -Northfield에서 선정된 Laurie Halse Anderson의 *Fever 1793*의 주제표목 “Yellow fever--Fiction”, 2005년 Virginia 주 Alexandria에서 선정된 Charles Seife의 *Zero: The Biography of a Dangerous Idea*의 주제표목 “Zero (The number)”, 2011년 Connecticut 주 Fairfield에서 선정된 Jonathan Safran Foer의 *Eating Animals*의 주제표목 “Vegetarianism --Philosophy” 같은 주제표목들이다.

셋째, 703개 주제표목들 중 여전히 ‘...계 미국인’을 의미하는 “...Americans...” 혹은 “...American...”을 포함하는 주제표목들이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African Americans...”를 포함한 주제표목들 외에도 “Japanese Americans--Evacuation and relocation, 1942-1945 --Fiction”, “Chinese Americans --Biography”, “Haitian Americans --Fiction” 등 주제표목들이 모두 38권의 책(5.4%)에 나타났다.

그밖에 미국 원주민인 “... Indians”를 포함하는 “Arapaho Indians--Fiction”, “Indians of North America--Fiction”, “Navajo Indians--Biography” 등 주제표목들은 모두 11권의 책에 나타났다. “Jewish families--Fiction”, “Jewish refugees --Fiction” 같이 유대인 관련 주제표목을 가진 책도 4권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인종 혹은 민족 집단과 관련된 주제표목을 가진 책은 53권(7.5%)에 이른다.

이전 연구에서 2005년 당시 ‘한 책’으로 선정된 90권의 주제표목들 중에서 “...Americans...”라는 주제표목이 가장 많이 나타남에 따라, 미국 내 다양한 인종에 관련된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이 주제표목들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선정된 책들의 주제적 다양성이 점점 더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각각 단 한 개의 개별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임에 따라 훨씬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전체적으로 전기적 성격의 책들 및 실존인물을 다룬 책들의 비중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 주제표목에 세목 “Biography”가 포함된 것은 39권(5.5%)으로 “Cancer - Patients--United States - Biography”, “Children of alcoholics - United States --Biography”, “Molecular biologists --United States--Biography”

같이 다양한 분야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10년 Montana 주 Bozeman에서 선정된, “People with disabilities--United States--Biography” 라는 주제표목을 가진 Kevin Connolly의 *Double Take: A Memoir* 같은 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존인물의 어린 시절 및 성장기를 다룬 저작에 주로 사용되는 “Childhood and youth”라는 주제세목을 가진 책도 12권(1.9%) 포함되어 있다. 2006년 Arkansas 주의 주 전역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Shirley Abbott의 자전적 소설 *The Bookmaker's Daughter*는 “Abbott, Shirley--Childhood and youth”라는 주제표목을 갖고 있으며, 2004년 California 주 Saratoga에서 선정된 Maxine Hong Kingston의 *The Woman Warrior*는 “Kingston, Maxine Hong--Childhood and youth”라는 주제표목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실존인물을 첫 번째 주제표목에 포함하고 있는 책들도 여러 권 있다. 예를 들어 “Revere, Paul, 1735-1818”을 주제표목으로 가진 David Hackett Fischer의 *Paul Revere's Ride*, “Patten, Mary Anne Brown, 1837-1861--Fiction”을 주제표목으로 가진 Doug Kelly의 *The Captain's Wife* 같은 책도 있다. 이처럼 실존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표목을 가진 책들은 69권(9.8%)이다.

다섯째, 703개의 주제표목들 중에는 다양한 성격의 비소설적 주제표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설을 위한 세목 “Fiction” 혹은 “Juvenile fiction”을 가진 주제표목은 440개(62.6%)에 이르고, “American literature--California”, “Children's stories, American” 등 문학적 성격의 주제표목

들, 앞서 언급한 “African American physicians --Biography”, “Gates, Henry Louis, Jr.--Childhood and youth” 같이 전기적 성격이거나 실존인물을 다룬 주제표목들을 제외한 비소설적 주제표목들의 수는 87개(12.4%)였다. 그밖에 “Curiosities and wonders--Kansas”, “Diffusion of innovations”, “Forest ecology--New England” 등 다양한 주제표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주제표목들과 LC 분류기호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지레코드가 있는 735권의 책들 중, LC 분류체계에 따른 문학 주제(P) 책들이 530권(72.1%), 비문학 주제 책들이 205권(27.9%)이었다. 문학 주제 책들 중 499권의 서지레코드는 주제표목을 가지고 있지만, 31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 중 438권은 주제표목에 “Fiction” 혹은 “Juvenile fiction” 세목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61권은 “Biography”(7권), “Drama”(7권) 등 여러 세목을 포함하고 있다.

비문학 책들 중 “Biography”를 포함한 주제표목을 가진 책들은 해당 인물이 종사하거나 관련된 특정한 주제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자폐증 환자를 다룬 “Autistic people--United States--Biography”라는 주제표목을 가진 Temple Grandin의 *Emergence, labeled autistic*의 분류기호는 RC553, 아프리카계 미국인 내과의를 다룬 “African American physicians --Biography”라는 주제표목을 가진 Sampson Davis, George Jenkins와 Rameck Hunt의 *The Pact*의 분류기호는 R695로, 둘 다 의학 주제로 분류되었다.

전체에서 “Juvenile literature” 세목을 가진 비문학 청소년 대상 책들은 15권으로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었다. 예를 들어 “Bridges, Ruby--

Juvenile literature”라는 주제표목을 가진 Ruby Bridges의 *Through My Eyes*의 분류기호는 F379이다. 이 책은 Ruby Bridges가 1960년대 6살 어린이로서 흑백 학교 통합에 개입하였던 스토리를 다룬 인터뷰로서 미국역사로 분류되었다. “Shackleton, Ernest Henry, Sir, 1874-1922--Juvenile literature”라는 주제표목을 가진 Jennifer Armstrong의 *Shipwreck At the Bottom of the World: the extraordinary true story of Shackleton and the Endurance*의 분류기호는 G850으로 지리, 인류학, 오락 등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4. 맺음말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선정된 책 1,102권과 이들 가운데 LC OPAC에 서지레코드가 있는 735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기간 동안 진행된 2,331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고유한 책들은 1,102권이며, 이들 가운데 적어도 2개 이상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290권(26.3%),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은 812권(73.7%)이다. 1,102권의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작품은 여전히 *To Kill a Mockingbird*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선정된 책들의 선호도 순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 책’의 수명은 대부분 몇 년 정도이지만, *To Kill a Mockingbird* 같은 미국문학 고전인 책들의 수명은 The Big Read와 함께 연장되고 있다.

둘째,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되었고, LC 목록 서지레코드에서 발행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책 726권 중 2000년-2009년 사이 발행된 책이 412권(56.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발행 1년차(122권, 16.8%)와 2년차(111권, 15.2%)에 선정된 책들이 많음으로써 신간에 대한 선호는 입증되었지만, 1800년대 및 190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책들도 여전히 선정되고 있다.

셋째,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735권은 LC 분류체계의 20개 주제 클래스에 분산되어 있고, P(언어 및 문학) 주제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530권, 72.1%), 다양한 비문학 주제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P 주제에서는 PS(미국문학) 책의 선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307권, 57.9%), PZ(소설 및 청소년 순수문학)에 해당하는 책들도 많이 선정되었다(178권, 32.6%).

넷째, 장르 표목을 가지고 있는 책 277권은 가정소설(54권, 19.5%), 역사소설(36권, 13.0%), 심리소설(30권, 10.8%)의 비중이 높았지만, 전체는 43개 장르로 분산되어 장르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LC 주제표목을 가진 703권의 분석에서 고유한 주제표목은 모두 535개로 매우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 중 440개(62.6%)는 단 한 권에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책에 나타난 주제표목은 "City and town life--Fiction"(10권)과 "World War, 1939-1945"(8권)이다.

여섯째, 유사한 성격에 따라 구성된 96개의 주제표목 그룹에서 가장 큰 그룹은 "African American..."으로 시작되는 그룹(10개 표목, 20권)과 "Women..."으로 시작되는 그룹(13개 표목, 16권)이다. 여전히 미국 내 다양한 인종 및 민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하지만, 이전보다 그 비중은 줄어들고, 선정 책의 주제적 다양성은 더 확대되었다. 또한 "Biography"(39권, 5.5%), "Childhood and youth"(12권, 1.9%) 및 인명을 포함하는 전기적 성격의 책들 및 실존인물을 다룬 책들의 비중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한 책'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은 주로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삶을 그리는 문학작품들이었다. 또한 '한 책' 독서운동의 확산 초기부터 'One Book, One Chicago'와 같이 선도적 '한 책' 프로그램들에서 선정된 책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자주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은 이전 연구(2012, 2014a)에서 검토한 2개 이상 프로그램 선정 책들보다 훨씬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문학 및 비소설 작품들을 포함하며, 고유성과 개별성을 보여준다. 전형적으로 중요시되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다양한 이민자와 원주민 집단의 삶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역사적 사건, Lewis and Clark Expedition(1804-1806), Beagle Expedition(1831-1836)과 같은 모험과 탐험, 유전자, 생태계,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자폐증과 지체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인권 등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책들이 아직은 미국문학이라는 지역적 경계 안에서 머물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의 민족적, 인종적 및 문화적 배경과 경험에 주목하던 데서 벗어나 장애, 빈곤, 학대, 입양, 차별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룬 읽을거리들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한 책'의 주제적

다양성의 확장 추세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 책’ 독서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지 이십년이 되어가면서, 진행된 프로그램 수의 증감, 읽은 책의 종류와 선호도, TBR과 같은 형태로의 확장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황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형태의 지역사회 독서운동이 지속되면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선정된 책들에서 자주 다루어졌던 이해, 관용, 통합 같은 주제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과 삶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이라도 미칠 수 있었는지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체적으로 선정 책들의 주제는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다른 어디에서도 선정된 적 없는 한 권의 책을 택하여 읽는 지역사회들이 적지 않고,

단 한 개의 ‘한 책’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들의 집합은 다양성과 개별성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To Kill a Mockingbird*나 *Fahrenheit 451* 같이 다수가 관심을 갖는 책들에 많이 의존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점차 지역마다 고유하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는 다양한 책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개별 지역사회가 특정한 책을 선정하며 지향하는 바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선정되었을 이 책들이 누적됨으로써 결국은 초기에 지향하던 지역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통합 같은 주제들을 넘어서서, 점점 더 보다 근본적인 환경, 빈곤, 평화, 인권, 역사, 그리고 사람과 삶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되는 집합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지역사회를 벗어난 더 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향후에도 이처럼 ‘한 책’ 프로그램과 선정 책들을 계속 추적하여, 어떤 책을 실마리로 해서 어떻게 ‘한 책’ 독서운동 전반의 관심 방향과 범위가 확장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참 고 문 헌

- [1] 우윤희, 김종성. 2014. 우리나라 ‘한 도시 한 책’ 운동 선정도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309-336.
- [2]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4.
- [3] 윤정옥. 2009. 미국의 지역사회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The Big Read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311-333.

- [4] 윤정옥. 2012.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47-68.
- [5] 윤정옥. 2013.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27.
- [6] 윤정옥. 2014a.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선정 책의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171-194.
- [7] 윤정옥. 2014b. '한 권의 책'으로서 『앵무새 죽이기』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15-133.
- [8] 윤정옥. 2015. '한 권의 책'으로서 『화씨 451』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185-208.
- [9] 이용재. 2008.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 단계와 발전전략: '원북 원부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47-265.
- [10] 이용재. 2009.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5-23.
- [11] 조찬식. 2013. 대중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의 '원 북, 성북' 독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01-221.
- [12] Dempsey, B. 2009. "One Great Idea." *Library Journal*, 134(14): 19-22.
- [13] Griswold, W. and Wohl, H. 2015. "Evangelists of Culture: One Book Programs and the Agents Who Define Literature, Shape Tastes, and Reproduce Regionalism." *Poetics*, 50: 96-109.
- [14] Library of Congress. 2007. *MARC 21 Bibliographic - Full, 655 - Index Term-Genre/Form (R)*. [online] [cited 2017. 6. 6.] <<https://www.loc.gov/marc/bibliographic/bd655.html>>
- [15] Library of Congress. 2017a. *The Center for the Books. "Local/Community Resources."* [online] [cited 2017. 4. 2.] <<http://www.read.gov/resources/state.php>>
- [16] Library of Congress. 2017b. *The Center for the Books. "'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Selected List by Author."* [online] [cited 2017. 4. 1.] <<http://www.read.gov/resources/authorlist.php>>
- [1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NEA). 2017. *History/Overview of NEA Big Read*.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neabigread.org/program_history/>
- [18]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Media and Entertainment. 2017. *One Book, One New York - the World's Largest Community Read - Finishes With a Bang*. [online] [cited 2017. 6. 24.] <<http://www1.nyc.gov/site/mome/initiatives/1book1ny.page>>
- [19] Rockman et al. 2009. *The Big Read: Case Studies*. Submitted to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ED511704.
- [20] Sloan, K., Honeyford, M. and Bass, K. 2008. *A Book Club for a Nation, Built Chapter by Chapter. The Big Read.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by Rockman et a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Woo, Yun-Hee and Kim, Jong Sung. 2014.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for 'One Book, One Ci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309-336.
- [2] Yoon, Cheong-Ok. 2005. "An Analysis of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7-44.
- [3] Yoon, Cheong-Ok. 2009. "A Study on the Community Reading Campaigns: 'The Big Read'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311-333.
- [4] Yoon, Cheong-Ok. 2012. "An Analysis of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47-68.
- [5] Yoon, Cheong-Ok. 2013.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the U.S.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27.
- [6] Yoon, Cheong-Ok. 2014a. "An Analytical Study on the Books Selected in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s in the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171-194.
- [7] Yoon, Cheong-Ok. 2014b. "A Study on *To Kill a Mockingbird* as 'One B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115-133.
- [8] Yoon, Cheong-Ok. 2015. "A Study on *Fahrenheit 451* as 'One B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185-208.
- [9] Lee, Yong-Jae. 2008.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One Book, One City' Campaign: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Busa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47-265.
- [10] Lee, Yong-Jae. 2009.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nd Communities through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5-23.
- [11] Cho, Chan-Sik. 2013. "A Study on the Public Reading Campaign: The Case of 'One Book, Seongbuk' Campaign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01-221.